

‘광주 미분양’ 완전 해소

2년새 1만여가구 소진...되레 공급 부족 우려

U대회發 주택시장 활기

광주 경제의 끝짓거리였던 미분양 아파트가 1년여만에 완전히 해소됐다. 최근에는 되레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선수촌 건립의 영향으로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치솟는 등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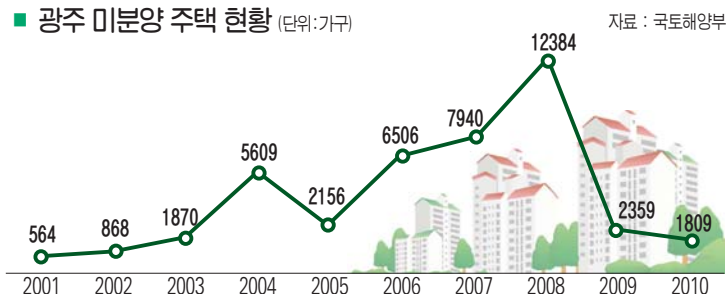
7일 국토해양부와 광주시, 지역 주택건설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지역 미분양 주택 물량은 1809가구로 집계됐다. 여기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 미분양 물량 33가구를 합하면 총 1842가구다.

이는 지난 2002년 말 868가구 이후 8년만에 가장 낮은 물량이며, 미분양이 가장 극심했던 2009년 3월 1만 2821가구보다는 무려 85.9%인 1만 1012가구가 줄어든 수치다.

광주지역 미분양 물량은 2003년 12월 1870가구에서 2004년 5609가구로 크게 늘었다가 2005년 2156가구로 줄었다. 이후 2006년 6506가구, 2007년 7940가구, 2008년 1만2384가구로 급증했다.

하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주택건설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공급이 끊기고 미분양 해소를 위한 각종 할인혜택이 쏟아지면서 2009년 말 2359가구, 지

■ 광주 미분양 주택 현황 (단위:가구)



난해 말에는 1809가구로 감소했다.

특히 ‘약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크게 감소했다. 2009년 2월 6653가구에 달했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같은 해 7월 4930가구, 10월 3740가구, 지난해 2월 2869가구, 6월 1779가구, 12월 1066가구로 1년10개월만에 83.9%(5587가구)가 소진됐다.

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도 2009년 3월 1591가구에 달했던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월6단지 중대형 평형 33가구만 남아있다.

지역 주택건설업체는 현재 남아있는 1000가구대 규모의 미분양 물량은 사실상 미분양을 완전히 털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형(85㎡ 초과)과 입지 조건이 열악한 곳만 남아 있다는 진단이다.

오히려 지난 3년간 주택 공급이 없었던 데다 광주U대회 선수촌 건설로 광주시 서구 화정·염주 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이 이동을 시작하면서 전세

대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파트값도 크게 오르고 있다.

U대회 선수촌으로 재건축될 화정 주공아파트 입주 주민 2900가구와 지원 시설 예정지 염주주공 1119가구 입주자들이 지난해 말부터 집을 비우고 이사를 하면서 주변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이로 인해 전세값은 매매가의 90%에 육박하고 있고 전세 수요가 매매로 옮겨가면서 중소형 주택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지회 신수의 사무처장은 “주택건설 호황기에도 100% 분양은 없다. 1000가구 규모면 약성만 남은 것으로 미분양이 완전히 소진됐다고 봐야 한다”며 “서구에서 촉발된 U대회발 전세대란과 신규 분양 계획을 고려하면 오히려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지난해 말 2504가구로 조사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유치’를 위한 국회포럼’에서 강은태 광주시장, 정순남 전남도 부지사, 김영진 국회의원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선우중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등 참석자들이 ‘과학벨트 호남권을 중심으로’란 슬로건이 적힌 필치막을 들고 과학벨트의 호남권 유치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호남권이 과학벨트 입지 최적”

충청권 가면 과학기술·인력·자본 범수도권 쏠림 심화

국회서 호남유치 포럼

충청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가 유치될 경우 다른 지방도시의 과학기술·인력·자본을 유입하는 블랙홀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국 경제권을 네트워크로 구축할 수 있는 호남권이 과학벨트 입지에 최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를 위한 국회포럼’에서 김진희 의원의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유치 제안을 통해 “호남권은 충청권을 포함한 범수도권을 연결하는 서해안벨트

트, 대경권을 연결하는 내륙벨트, 동남권을 연결하는 남해안벨트를 통합하는 국가과학 통합네트워크의 핵심 허브로서 ‘과학한류’를 창출하는 최적지’라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대덕 등 충청권은 전철 및 고속철(KTX) 등 교통여건의 획기적 개선으로 인해 범수도권화했으며 거대 범수도권의 출현은 지방거점도시의 과학기술·인력·자본을 유입하는 블랙홀로 작용, 타지역 과학기술 기반 약화를 촉진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동국 광주테크노파크원장도 “대덕이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중심이 될 경우 압도적 과학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타지역의 과학 기술·인력·자본을

무차별적으로 흡수하는 블랙홀로 작용할 것”이라며 “광주가 과학벨트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하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서울과 대덕은 연구소 등이 이미 포화상태”라며 “따라서 호남 등 새로운 지역에 (과학벨트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특히 ▲핵심하고 저렴한 주거환경 ▲우수한 기초과학 인프라 ▲지방의 안정성 등을 바탕으로 과학벨트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 본원과 중이온가속기 설치의 최적지는 호남권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강은태 광주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광주·전남에 과학벨트가 조성되는 것은 성공의 보장이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결정”이라며 “광주는 과학벨트를 바탕으로 대구와 대전을 잇는 내륙 기술과학 삼각벨트를 구축,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강은태 광주시장, 정순남 전남도 경제부지사, 민주당 김영진·이낙연·유선호·박주선·최인기·주승용·유근근·강기정·김재균·조영택·이용섭·장병완·김영록 의원, 강경제 전 전남대 총장, 김혁중 광주대 총장, 제일병 광주발전연구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5년까지 현직·예비교사 1만명 외국 파견

교과부, 임용난 해소하고 국제역량 강화

올해부터 수업능력이 탁월한 현직 교사와 교대·사범대 출신 예비교사들이 외국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연수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현직교사 사기 진작과 교대·사범대 졸업생 임용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총 1만여명의 교사에게 외국파견,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주는 ‘우수 교원 해외 진출 지원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교사들의 영어실력 등 국제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대·사범대 졸업생의 낮은 취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교원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규모가 크게 확대된다. 교사들을 일주일간 외국으로 보내 교육현장을 체험하고 현지 학교에서 직접 수업할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3~6개월인 파견기간을 12개월로 늘리고 파견 대상국도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장기적으로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몽골, 동남아, 중동 지역 등으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특히 과학, 수학 교사들은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미 항공우주국(NASA), 국제이론물리센터(IC-TP) 등 저명 연구기관의 연수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국가별로 다른 방화기간을 이용해

외국 교사와 교환 연수를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올해 우리나라와 미국 뉴욕의 수학·과학 교사 30명씩을 선발해 서로 상대국 학교에서 보조 교사로 활동하면서 현지 교수법을 체험하게 할 계획이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 교사들에게는 자동차(독일), 전자(일본), 낙농(덴마크), 화훼(네덜란드), 디자인(이탈리아) 등 산업 분야별로 특화된 ‘테마연수’가 실시된다.

교대·사대 재학·졸업생, 기간제 교사, 학습 보조교사 등 예비 교사들의 해외 진출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30명, 내년 50명 등 2015년까지 250명의 예비교사를 선발해 외국에서 교사 활동을 하거나 현지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순천 경전선 복선화 검토

국토부 계획 수정안 첫 반영...2020년까지 결정

광주·전남은 물론 영남권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 지속적인 추진을 요구해왔던 광주~순천 간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국토해양부의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에 처음으로 반영돼 오는 2020년까지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또 전북의 새만금지구에 신항이 건설되고, 군산공항의 확장이 검토되면서 전남 광양·목포항과 광주·무안공항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공개된 국토해양부의 제4차 국

토종합계획 수정안(2011~2020)에 따르면 광주~순천 간 경전선 복선전철화에 대해 오는 2020년까지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지구와 서남해안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 및 항공수요 추이에 따라 군산공항 확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전주·서남해안의 전통문화를 연계해 문화관광·교류 중심지로, 새만금지구와 서남해안관광대도시를 연계해 동북아 해양관광벨트로, 새만

금 및 여수는 동북아 해양관광허브로 각각 육성할 방침이다. 호남권의 도시·해양·산악·농어촌 관광연계사업을 위해 호남광역권 관광진흥추진기구도 구성해 권역 내 지방

자치단체들의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전선 중 유일하게 단선인 광주~순천 간 복선전철화가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2020년까지 검토만 하겠다는 것은 사업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실시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4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HAPPINESS COUNTRY CLUB
www.happinesscc.com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 위치: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락리 1219 번지
■ 코스규모: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 VIP정회원
- 입회금액: 3억3000만원 - 모집인원: 20명
- 회원특전: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동반3인 상시 그린피 50%할인, 연20회 그린피 면제, 단 1일 1회 18홀 기준), 월 8회 주말부킹 보장(1일 1회),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무기명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할인
* 계약시: 정회원만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완납시: 모든 특전제공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납입후 1개월내 잔금완납

■ 해피정회원
- 입회금액: 1억원 - 모집인원: 49명
- 회원특전: • 공통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선택 - A형, B형, C형 중 선택(1)
A형 지정회원 1인 준회원대우(단,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할인혜택
B형 지정회원 미션택시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우대혜택
C형 무기명카드 1매: 그린피 50%할인(연 60회 사용, 1일 1회)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혜택 없음, 지정회원 없음.
* 계약시: 정회원만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완납시: 모든 특전제공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납입후 1개월내 잔금완납

■ 주중 / 평일회원
- 입회금액: 3300만원 - 모집인원: 50명
- 회원특전: 평일회원 1인 그린피 70%선 할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납입후 1개월내 잔금완납

* VIP회원 및 해피정회원은 광주은행 담보대출 70%선(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
* 공개모집 인원 초과시 추첨에 의하여 회원선정.

가입문의 Tel. 061-330-5001~4 Fax. 061-330-5009